

2010 UIFA SEOUL

16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Union of Women Architects
Le XVIème Congrès de L'Union Internationale des Femmes Architectes

2010 세계여성건축가서울대회

Green Environment

October 4(Mon) – 8(Fri), 2010
October 9(Sat) – 12(Tue), 2010 for Post Tour

National Museum of Korea

www.2010uifa-seoul.com



Hosted by Union Internationale des Femmes Architectes (UIFA)

Organized by Korean Institute of Female Architects(KIFA), Organizing Committee of 2010 UIFA SEOUL

UIFA



회장

Solange D'HERBEZ DE LA TOUR, 프랑스

수석부회장

Nobuko OGAWA, 일본

Junko MATSUKAWA-TSUCHIDA, 일본

부회장

Donna DUNAY, 미국

Graciela SCHMIDT, 아르헨티나

Shoshana MADJAR, 이스라엘

오 경 은, 한국

Ute WESTROM, 독일

사무국장

Marika FEYES, 헝가리

총무

Georgeta Gabrea, 루마니아

KIFA



명예회장

이 신 옥

지 순

천 병 옥

김 화 련

김 복 수

김 인 숙

박 연 심

배 시 화

회장

오 경 은

수석부회장

권 영 속

부회장

최 경 속

감사

김 희 옥

이 인 서

기획이사

박 영 순

기획위원회 연구부

이승희 (국제교류분과위원회)

이순희 (역사분과위원회)

오은진 (노인복지분과위원회)

변소영 (보육시설분과위원회)

정유나 (주택연구분과위원회)

김남희 (정보문화분과위원회)

기획위원회 운영부

김혜림 (재정위원회)

장현숙 (편찬위원회)

박성신 (홍보위원회)

박순천 (사업운영위원회)

고은영 (사업봉사위원회)

안은숙 (사무관리위원회)

전체일정표

2010 UIFA SEOUL

	10월 4일(월)	10월 5일(화)	10월 6일(수)
	1일차	2일차	3일차
		"전통에서의 Green"	"친환경 주거"
9:00		패밀리투어 기조연설 1 사회자: 윤재옥 지순 (한국)	패밀리투어 기조연설 2 사회자: 오은진 마리나 스타코빅 (독일)
10:00		덕수궁 (09:30~10:30) 전시 오픈행사 (09:30~10:30) Session1 소강의실1 좌장: 남윤옥 Kayoko YAMAMOTO (일본) Session2 소강의실2 좌장: 강미선 Helene RENARD (미국) 정유나 (한국) 김남희 (한국) Yifang XU (중국) Noriko MIKAMI (일본)	Break Session3 소강의실1 좌장: 이재림 최광식 (한국) Session4 소강의실2 좌장: 이명주 허수은 (한국) Diane GAYER (미국) Alice Finnerup MOELLER (덴마크) 이현희 (한국) 조성희 (한국)
11:00		청와대 사랑채 (11:00~11:50) 윤재옥 (한국) 오은진 (한국)	누리꿈 스퀘어 (10:10~11:40) Junko MATSUKAWA-TSUCHIDA(일본) 이명주 (한국) 이승희 (한국) Sekiko TERAMOTO (일본) Soonja VINIEGRA (미국) Atsuko YASUTAKE (일본) 김용미 (한국) Nobuko MIYAMOTO (일본)
12:00		점심식사 '차림'	점심식사 '한차림'
13:00		점심식사 '도시락'	점심식사 '한식당, 푸드코트'
14:00		문화탐방	문화탐방
15:00		창덕궁 및 후원 관람 (13:40~15:30)	힐스테이트 갤러리 (14:30~16:30)
16:00		종묘 관람 (15:50~16:50)	
17:00	기자회견 KIRA		
18:00	개회식 KIRA 대강당	환영만찬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 칼라코드 : 붉은색 혹은 그린	Free Time
19:00			
20:00			

Post Tour

10월 7일(목)		10월 8일(금)		10월 9일(토)		10월 10일(일)		10월 11일(월)		10월 12일(화)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여성친화도시와 도시재생"													
패밀리투어 기조연설 3 사회자: 이 선 영 교수 마라 세르베토 (이탈리아)				인천탐방 갯벌타워 브리핑 (09:30~10:15)		경상북도 07:30출발 김천으로 이동		경상북도 불국사 (09:00~10:00)		전라북도 07:00 아침식사 08:00 출발 전북으로 이동		전라북도 한옥마을 도보탐방 (09:00~10:30)	
						Break Session5 소강의실1 좌장, 정유나 / Session6 소강의실2 좌장, 김남희		전라북도 신라미술레니움파크 공연장으로 이동		전라북도 건축문화 시상식 '전북도청' (11:00~11:40)		전라북도 특별강연 송랑주회장	
남산한옥마을 김현진 (한국) / 이춘경 (한국) Graciela SCHIMDT (아르헨티나) / Donna DUNAY (미국)				송도컨벤시아 (10:40~11:00)		전라북도 마상무예공연 (11:30~12:00)		전라북도 점심식사 '떡거리촌'		전라북도 점심식사 '명인바지락 족'		전라북도 13:00 출발	
						Nobuko KOMURA (일본) / Akiko NAKANO (일본)		전라북도 대릉원/천마총 (13:50~14:50) 첨성대/계림숲 월정교/최씨고택 (14:50~15:50)		전라북도 새만금 신시도 33센터		전라북도 한옥마을 체험 (전주 한옥마을 숙박)	
인사동 쌈지길 (11:20~12:20) 이재림 (한국) / 김영애 (한국) Kay EDGE (미국) / 문선옥 (한국) 이아영 (한국) / 손승희 (한국)				트레이드센터 (11:00~11:10)		전라북도 김천문화예술회관 (11:30~14:30)		전라북도 국립경주박물관 (16:20~17:20)		전라북도 서울도착 (16:30)			
						점심식사 '더 테라스'		전라북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파크 (15:30~17:00)		전라북도 인천아트 플랫폼 (16:20~17:30)		전라북도 UIFA 이사회 하버파크호텔	
점심식사 '두대문집' 점심식사 '한식당, 푸드코트'				점심식사 '더 테라스'		경상북도 9:00		경상북도 10:00		경상북도 11:00		경상북도 12:00	
						점심식사 '한식당, 푸드코트'		경상북도 13:00		경상북도 14:00		경상북도 15:00	
문화탐방 청계천 관람 (14:00~14:50)				컴팩스마트시티 투모로우시티 (13:20~15:40)		경상북도 18:00		경상북도 19:00		경상북도 20:00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 파크 (15:30~17:00)		경상북도 저녁식사 (13:30~14:30)		경상북도 경북도청 주최만찬		경상북도 전북도청 주최만찬	
서울시 주최 만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Dress Code : Casual				환송 만찬 하버파크호텔 복장 : 전통복 혹은 이브닝드레스		경상북도 21:00		경상북도 22:00					
						경상북도 경주양동마을 (13:30~14:30)		경상북도 경주공고드 호텔					

2010 UIFA SEOUL

장소안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대강당 입구

개회식 오픈식

2010. 10. 5, 09:50-10:30

대강당

기조연설

2010. 10. 5-7, 09:00- 09:50

대강당 로비

전시

2010. 10. 5-7 09:00-18:00

A 등록데스크

October 5-7, 08:00-14:00

소강의실 1

Session 1

October 5, 10:30-12:00

소강의실 2

Session 2

October 5, 10:30-12:00

B Secretariat

October 4-7, 08:00-18:00

Session 3

October 6, 10:00-12:00

Session 4

October 6, 10:00-12:00

C VIP Room

October 5-7, 08:00-14:00

Session 5

October 7, 10:00-12:00

Session 6

October 7, 10:00-12:00

2010 UIFA SEOUL 대회정보

등록 데스크

참가자는 등록 데스크에서 반드시 등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들은 대회 가방, 명찰, 프로그램북 그리고 지불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	대한건축사협회사옥 1층 로비	
운영 시간	13:00~18:30	2010년 10월 4일 (월)

위치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운영 시간	08:00~18:00	2010년 10월 5일 (화)~ 10월 7일 (목)

사무국

위치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출연자 대기실	
운영 시간	08:00~18:00	2010년 10월 4일 (월)~ 10월 7일 (목)

공식 행사 및 사교 행사

2010세계여성건축가서울대회 조직 위원회는 다양한 사교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 간에 친밀감을 높일 수 있으며 행사 기간 동안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 개회식

위치	대한건축사협회사옥 대강당	
운영 시간	19:00~21:00 (리셉션 18:30~19:00)	2010년 10월 4일 (월)

· 환영만찬

위치	그랜드하얏트 호텔, 그랜드볼룸	
운영 시간	19:00~21:00 (리셉션 18:30~19:00)	2010년 10월 5일 (화)
드레스 코드	스마트 캐주얼, 빨간색 혹은 초록색	

· 서울시 주최 만찬

위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운영 시간	19:00~21:00 (리셉션 18:30~19:00)	2010년 10월 7일 (목)
드레스 코드	캐주얼	

· 환송만찬 및 총회

위치	하버파크 호텔, 그랜드볼룸	
운영 시간	19:00~21:00 (리셉션 18:30~19:00)	2010년 10월 8일 (금)
드레스 코드	전통의상 혹은 이브닝드레스	

UIFA 이사회

위치	하버파크 호텔, 자스민	
운영 시간	16:30~18:00	2010년 10월 8일 (금)

호텔정보

호텔	객실타입	가 격		세금, 봉사료 & 조식	주소, 전화번호
		Double Occupancy	Double Occupancy		
그랜드하얏트호텔 ★★★★★	그랜드 더블	KRW 290,400	KRW 350,900	포함	서울 용산구 한남2동 747-7
	그랜드 트윈	KRW 290,400	KRW 350,900		Tel: +82 2 797 1234
호텔캐피탈 ★★★	더블 침대	KRW 156,000	KRW 182,000	포함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76
	트윈 침대	KRW 156,000	KRW 182,000		Tel: +82 2 792 1122
서울유스호텔	2인실	□ KRW 38,500 per a person		포함	서울 종로구 예장동 산 4-5 Tel: + 82 2 319 1318

* 세금, 봉사료, 조식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스호텔은 타인과방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유스호텔에서 함께 방을 이용하실 분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배정합니다.

셔틀버스

셔틀 버스는 10월 4일 월요일에서 10월 7일 목요일까지 총회 장소와 총회에서 지정한 공식 호텔들 사이에서만 운영됩니다. 등록 데스크에서 수령한 명찰을 제시하시면 셔틀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날짜	이동경로	시간
10월 4일	서울 유스호텔 → 그랜드 하얏트 호텔 → 캐피탈 호텔	17:20 (Arrive)
10월 5일 - 7일	서울 유스호텔 → 그랜드 하얏트 호텔 → 국립중앙박물관 → 캐피탈 호텔 → 국립중앙박물관	08:00 08:15 08:45

** 10월 8일 (금요일) 인천송도로 이동하는 버스 서비스는 제공됩니다.

Keynote Speech

Tradition of Being Green (전통에서의 그린)

Soon CHI (지 순), Korea

Formal President of KIFA (전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

Moderator (사회자): Jae Ok YOON (윤재옥)

Shade of Green (녹색그늘)

Marina Stankovic (마리나 스타코빅), Germany

Cofounder, Stankovic Architekten BDA

Moderator (사회자): Eun Jin OH (오은진)

From 'iconic architectures' to 'architectures for iconic behaviors' (‘상징이 되는 건축’에서 ‘상징이 되는 행동을 위한 건축’으로)

Mara Servetto (마라 세르베토), Italy

Cofounder, Migliore + Servetto Architetti Associati

(미글리오레 세르베토M+S 건축사무소 공동대표)

Moderator (사회자): Eun Jin OH (오은진)



Keynote Speech



Soon CHI

Formal President of Korean Institute of Female Architects (KIFA)

Soon CHI graduated from the Architecture departm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addition, she is also the first woman registered architect who earned the registered architect's license in Korea.

[Career]

1958-1960	Kojosa Architecture & Engineers Co.
1961-1970	Architecture dept. of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1970-1982	President, Iyang Institute for Architecture
1971-1991	Professor, Housing & Interior design at Yonsei University
1983-2003	Currently advisor of Gansam Partners Co. KIFA, KOSID, the institute of interior,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Awards]

2003 The 3rd Bichumi Woman Awards Dali-awards
2007 Woman Designer Leadership Achievement Award

[Project]

1984 The Bank of Korea Head Office
1985 The Master Plan of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02 The History Hall of POSCO etc.

Tradition of Being Green

The theme of this 16th Congress of the UIFA is "the Green Environment". The Green Environment is proposed as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environment which poses a profound risk to the survival of the human race due to the side effects of industrial waste and pollution. About 40 years ago, I opened an architectural firm under my name as a women architect, a first for Korea, haven't retired yet, and am still actively working in the field. I have personally experienced every stage of architectur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Korea and at the same time, witnessed that it had damaged the natural environment. That's why I testify to importance of the "Green Environment".

Korea is traditionally an agricultural society. In the Korean peninsula, 75% of the nation is composed of mountains, and 25% is plains where rice fields and towns have developed. There are four seasons in Korea; 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like in China and Japan. But due to its unique nature as a peninsula surrounded by the ocean, it has developed its own Korean culture.



지 순

전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최초의 여성건축사이다.

[연혁]

1958-1960년 구조사 건축기술연구소

1961-1970년 대한주택영단(現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과

1970-1982년 일양건축연구소 대표

1971-1991년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주생활학과 교수

1983-2003년 (주)간삼건축 대표이사

現) (주)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 상임고문,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명예회장, KOSID고문,

실내장식학회 고문, 건설교통부 중앙건설기술 상임위원

[수상내역]

2003년 제 3회 비추미여성 대상 달리상

2007년 여성디자이너 리더쉽 어워드 공로상

[대표작품]

1984년 한국은행 본점

1985년 포항공대 마스터플랜

2002년 포스코역사관 외 다수

전통에서의 그린 (녹색환경)

이번 제16차 대회的主題는 “녹색자연 환경”입니다.

이 주제를 제시하게 된 것은, 20세기 산업이 발달되면서 산업 폐기물과 공해 발생의 부작용으로 지구환경이 공해에 오염되고, 파괴되고 인류 생존의 위기가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건축설계 사무소를 여성건축가의 이름으로 최초로 개설하여 오늘까지 건축설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여성건축가의 역사를 처음부터 오늘까지의 변천, 발전과정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녹색 자연환경이 점점 훼손되어 가고 있는 것을 건축설계를 할 때마다 위기가 심각하다고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의 오랜 역사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Keynote Speech

Korean traditional houses were built on the skirts of forested mountains where fresh air and mountain spring water were available. The farmers grew different kinds of crops during the Spring, Summer and Fall. Then the farmers stored the harvest and saved it for the Winter. Every year, Korean farmers repeated the same routine aiming for prosperity. Korean traditional housing styles were modeled on the theory of divination based on topology, "Feng Shui", which studied the locations of mountains, and the placement of houses in adapting to nature. Therefore, Korean traditional housing was well accommodated to mother nature.

The best location of the traditional houses was in front of the Northern mountains, which composed 75% of the land and faced the Southern plains. The mountains behind the houses blocking the bitter Winter winds provided a greenhouse effect for the houses. The wide open plains became agricultural land for the residents. This kind of Feng Shui was observed in the faith of the nature friendly.

Even our modern architectural designs adopt the knowledge of feng shui for the wisdom of maintaining a safe ecosystem in compliance to nature. However, at the same time, Feng Shui is often put down as mere fortune-telling sorcery.

There are two branches of the Feng Shui theory. The earliest form of Feng Shui was concerned with the favorable orientation of the tombs of the dead, called 'Ying dwelling', and the later one concerned with the placement of the houses, called 'Yang dwelling'. It is believed that a good burial site will bring peace and prosperity to the descendents of the deceased. Landforms play an important part in how a burial site would be laid out. Feng Shui based housing theory was developed in the same context and Korean modern architecture has embraced this concept as a classical and regional approach in designing houses.

Feng Shui pictures, which have been passed down from the past, show an ideal configuration called an "armchair" effect and like an armchair, you have a high back for a secure support, symbolized by the black tortoise. East of the site is the green dragon; West is the white tiger. The front, which is the South, is referred to as a 'footstool' and is symbolized by the red phoenix. In feng shui terms, the phoenix is described as an unobstructed view. Therefore, a site surrounded by mountains on three sides becomes a favorable site according to its geographical features. In fact, the climate of the region, the directions of streams and the shapes of mountains were often misused as astrology rather than respected as a tradition in shaping towns and personal properties.

Traditional Korean house structures and plans and ecological adaptation and harmony could be found in the Feng Shui theory. Korean traditional houses of upper class people were 'Guiwa-Jip', all one storied with tiled roof and wooden supports. Traditional peasant houses were called 'Choga-Jip', thatched cottages made of mud-plastered walls.

Traditional Korean houses, pronounced "han-ok" in Korean, have wooden columns which support a tiled roof. The layer of mud under the roof tiles keeps the interior warm. The interior is also protected by the mud walls, and the wooden columns are connected with paper windows and doors. In the winter, the Korean style floors, called "on-dol", also keep the interior warm. The Korean style floors are made of stones and pasted by mud. There is an opening from the ground, called "a-goong-ee", that works as a heater when firewood is burned inside. In Summer, the floors are pleasantly cool. The wind flows freely from room to room, from outside to inside, and allows good ventilation. In the courtyard, flower gardens make fresh air to breathe.

In the old days, Korean mountain spring water was abundant to drink. The wells (oo-mul) in the courtyard provided good quality drinking water. Because of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nation, the contaminated spring water became a big health issue.

한반도는 국토의 75%가 경사진 산악이며, 25%가 경작지 농토와 마을과 도시의 평지로 되어있습니다.

기후의 자연환경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입니다. 이웃나라 중국, 일본과 거의 동일한 지역이지만, 한국은 땅과 산의 형상이 삼면이 바다에 면한 반도의 지형환경으로 생활양식에서도 한국적 생활문화가 다음과 같이 진화 발전되었습니다.

한반도만의 고유한 자연환경으로 한국의 전통적 주거생활은 산악의 산림, 숲 속에서 얻어지는 맑은 대기와 맑은 물의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봄, 여름, 가을 동안 농산물을 경작하여 계절에 따라 곡식을 거두어서 식품을 저장하여 추운 겨울 동안 동면하면서도 다음 봄을 대비하며 매년 되풀이하는 생활양식이 전통적인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에 의존하여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지혜로 주거환경은 “풍수지리”라는 사상이 형성되었습니다. 중국, 일본에서도 볼 수 있지만, 특히 한국의 지형과 기후의 특성으로 발전한 “풍수지리”의 사상에 의존하면서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생활양식과 주거문화가 발달하여 오면서 옛 모습의 자연환경도 잘 보존되었습니다.

국토면적의 75%의 경사진 산과 25%의 평지에서 주거생활의 장소는 남쪽으로 경사진 산자락에 마을을 배치하였으며, 겨울의 추운 바람을 뒷산이 막아주어, 태양의 밝고 온화한 자연의 난방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마을의 남쪽으로 넓게 펼쳐진 평지에 경작지 농지를 형성하여 농산물의 수확을 높이는 효과를 갖도록 하는 녹색생활 환경조성의 오랜 전통으로 이어 오면서, 자연순응의 “풍수사상”이라는 신앙으로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풍수사상”은 자연환경과의 순응과 조화에서 인간생태의 풍요와 안전을 거두는 지혜로서 현대건축설계 창작구상에서 그대로 이어오고 있지만, 이를 마치 운명적인 운세의 “행운의 길조”와 “불행의 흉”으로 치부하는 점복술의 운세이론으로 전락하여 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풍수이론”(또는 풍수지리)에는 생활주거를 위한 이론을 “양택”(楊宅)이라고 하고, 묘지를 위한 이론을 “음택”(陰宅)이라고 하면서 묘지의 위치에 따라 후손의 성공과 불행을 갖는다는 미신의 무속신앙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주거생활의 풍수이론도 자연친화적 근거에서 발전된 풍수이론이며 현대건축계획에서 적용하는 계획원론의 고전이었습니다.

옛부터 전해오는 풍수지리의 그림을 보면 동, 서, 남, 북을 지키는 동물이 북쪽의 산은 거북, 남쪽의 산은 봉황새, 동쪽의 산은 청룡, 서쪽의 산은 흰색의 호랑이가 배치도의 중심을 둘러 쌓여 보호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환경의 사방이 산으로 포위되어 둘러 쌓인 산의 모양형성에 따라 명당이 되고, 흉터, 즉 불길한 땅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자연의 기후와 물의 흐름과 산과 토질이 비옥한 자연들의 생태조건을 평가하는 것으로 도읍과 건축을 건설하면서 전통으로 지켜왔으나 한편, 점성술의 남용으로 오용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집의 구조와 배치도, 생활, 생태적 적응과 조화로 분석하여 온 풍수이론과 가상학론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한국주택은 상류 서민층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은 단층이며, 기와지붕에 목구조가 한국 전통주택이고, 농민과 평민이 거주하는 주택은 땅에서 얻어지는 흙의 벽체와 농산물, 볏짚으로 지붕을 덮는 초가집입니다.

한국의 전통적 주택, 속칭 한옥은 나무기둥으로 기와지붕을 지지하고 지붕은 흙으로 보온층을 덮고 기와를 덮었고, 벽체는 흙벽으로 폐쇄하는 벽과, 개방된 기둥 사이는 창과 문으로 내부공간을 보호합니다. 겨울에는 지붕, 벽은 보온재로 추위를 차단하며, 바닥은 한국고유의 온돌구조이며, 연료를 아궁이에 가열하여 돌판과 흙으로 구성된 바닥의 열기로 실내난방을 유지하는 온돌은,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이 됩니다. 여름에는 창문이 열리면 외부공간과 관통되는 것처럼 통풍이 자유로워 시원한 여름을 지낼 수가 있어 좋지요.

마당에는 탄소동화작용이 활발한 꽃밭이 많은 공기를 만들어 줍니다.

Keynote Speech

Housing in the rural area permitted residents to pick wild plants and fruits in the mountain behind their houses. The food waste was recycled to feed the cattle and small domestic animals. The food storage (jang-dok-dae) was next to the house, allowing residents spare food by Korean style fermentation.

The primary product of the land was rice, which is grown out of the water-filled fields.

Every year, straws from the new grains were used to replace the rooftop. In the history of traditional Korean housing, nature had been retained as a means of recycling for a lifetime. Water from the rice fields cooled down the air by absorbing the heat from the sun. Everything came together to create environmentally friendly, good living conditions.

In the year of 1950, the Korean war broke out, reducing the entire nation to ashes. In 1953, when the Korean war reached an armistice, there was a big movement to reconstruct houses, towns and cities. I started dreaming of a vision that would bring me an opportunity to become a female architect in the male dominant Korean society.

Historically agricultural societies were rapidly turned into industrialized societies. Building thatched cottages were prohibited. Joint construction of sovereignty was encouraged and promoted. Urban housing became more mechanized. These changes allowed Korean architects to design large scaled buildings and industrial complexes.

In 1962, as a young female architect, I took part in the Mapo apartment housing project. That was the first apartment complex project in Korea.

There were six-storied ferroconcrete apartment buildings with stairs; each unit had briquette heated floors in the modified form of traditional Korean style heated floors, "on-dol". It was followed by a number of large scaled multi-unit apartment building research projects. The functions and structures were studied, and the oil-based central heating system was used to support the heated floors of "on-dol". This method allowed massive construction of apartment buildings in Korea. It took only about 50 years from thatched cottages to high rise multi unit apartment towns covering all over the nation.

Over the past 50 years, South Korea has experienced large scale economic growth, so its population was able to reach 50 million from 20 million, making the population density among the highest in the world. In the housing system, the single-unit structures dominated at first, but were later replaced by multi-unit structures. Since the auto industry has boomed to break a record of 10 million cars per year from 500,000 cars in the year of 1960, Korea became one of the top auto exporting countries, and parking spaces take one third of the building area. The volume of electricity was expanded from 700 million kilowatts to 400 billion 400 million kilowatts. Nuclear power plants were built to meet the demand of the high volume of electricity. Korea leads the world in generating energy for industry.

The rapid economic growth in Korea has changed its living conditions; high density housing, high quality electrical devices and appliances, rapid transit railways and freeways, etc became available for the entire nation. At the same time, due to the industrialization, problems such as traffic congestion, air pollution and contamination became serious social issues. These problems cannot be solved by the 19th and 20th century architectural design methods. The situation we face at this point can be only resolved by future oriented and

전통적으로 한국의 지하수는 전국이 천연의 청정한 물이어서, 주택 마당의 우물물에서 얻는 천연지하수가 건강한 식수와 생활용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국의 지하수가 산업화로 오염되기 시작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농촌의 주거생활은 주택의 뒷산에서 야생식물에서도 자연농산물을 채취도 합니다. 식생활 잔여폐기물은 가족의 사료로 양육하고, 식품저장은 발효저장의 지혜로 장독대 저장으로 한국의 특수식생활의 전통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농토의 주 생산은 물을 담은 농지에서 자라는 쌀농사입니다.

해마다 곡식을 가을에 수확을 하면 벼집으로 농가지붕을 새로 바꾸어 덮으며 살아왔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이어온 것은 수명주기(Life Cycle)의 무한가치로 볼 수 있는 자원의 재활용(Recycling)을 하면서 자연보호를 하여왔습니다. 논이 물은 뜨거운 태양열을 식혀주며, 여름 더위를 흡수하면서 기온을 조절하여 살기 좋은 친환경을 주도했습니다.

1950년 한반도에는 남북전쟁으로 도시와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1953년, 전쟁은 휴전이 되어 도시, 건물, 재건축, 건설의 붐이 일어나면서 건축가 설계활동도 바빠졌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건축을 그려보고 싶은 꿈을 갖고, 남성의 독점사회 분야인 건축계에 여성으로서 건축가를 지망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농경사회였던 국토의 재건 건설 정책이, 산업, 공업화 사회로 바뀌면서 자연 친화적 자조주택인 전통적인 초가 지붕의 건축이 금지되고, 집단 공동주거단지 건설을 촉진하고 도시규모의 주거생활 환경도 기계화의 공급, 배설 시스템으로 변화하면서 건축가의 창작설계의 프로젝트도 대규모의 도시건축, 공업시설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1962년 한국 최초로 대단위 공동주거단지 마포아파트를 설계할 때 젊은 여성 건축가로 참여하였습니다. 계단식 6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난방을 세대별 연탄 연료로 가열하는 한국전통 바닥 난방 온돌개량 구조입니다. 먼저 설명 드린 전통한국 주택의 온돌을 콘크리트스라브에 개량 설치한 것입니다.

대단위 공동주거 아파트의 기능과 구조에 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어지며, 석유연료의 중앙 공급 온수 난방배관 방식으로 단위별주택 아파트에 온수가 온돌바닥으로 공급되며, 난방기열이 편리하게 되면서, 공동주거 아파트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국토가 불과 50년 동안에 친환경의 자연풍경의 마을과 도시가, 초고층 공동주거 아파트로 전국을 뒤덮은 풍경으로 변화하였습니다.

50년 동안에 남한은 경제적 고도성장으로 인구가 2천만 명에서 5천만 명에 육박하며,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아졌고, 주거기능의 주택은 평지에 단독주택구조에서, 고층 공동주거아파트로 변화되었고, 자동차도 1960년에 50만대에서 지금은 천만대를 돌파한지 오래이며, 주차장공간이 공공건물의 전체적 건축면적의 1/3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자동차 생산이 한국의 주도적 수출 산업이 되었습니다. 전국이 교통체증으로 막심한 교통기능의 공해와 고민을 떠안고 있습니다.

에너지 주력의 전기발전의 용량은 7억 키로와트에서 4천4억 키로와트로 급성장하며 발전 원동력도 원자력으로 세계선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고도성장으로 고밀도의 주거와 기계, 전기의 편의 생활환경으로 바뀌고, 생활과 생산의 유통기능인 교통 체계도 고속화가 되며, 교통 체증이 높아지고, 공업, 산업의 사회로 발전되면서 과소비 에너지로 인하여 공기오염, 공해 발생 등의 새로운 양상의 생활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며, 19세기 20세기의 건축창작 설계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건축가들은 미래건축을 설계를 위해서는 친환경 보호 재생을 위한 설계방법을 연구 적용하며, 21세기의 새건축가상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한국의 현대건축설계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온 풍수이론의 친환경적 요소가 많이 이어지고 지켜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Keynote Speech

“Green Environment” focused architectural methods. Modern Korean architectural designs cling to some principals of mother nature in the Feng Shui theory. One of them is to plan that the front of the buildings faces the South.

As a female architect walking through the paths of the Korean economic growth, I would like to relate some of my architectural design experiences to you.

In 1976, I was elected for the master plan of the Bank of Korea head office building. At that time, it was sensational that a female architect was chosen for the project, which was planned to repair the damage from the Korean war. As a national bank, the head office building was equipped with the maximum security function system. Notably, pollution control systems were installed in the handling of scrapped bills and coins. And all the systems were changed from being operated by manpowered mechanism to machine automation. I realized the importance of the future oriented vision for architectural planning in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This is the POSCO building. It was built in 1995. And it is the headquarters building of the Pohang steel company, which is a world leading steel company with annual production of 15.6 million tons. As a world trading company, it requires automated computer systems working for 24 hours a day. It is a high technology building, called an “intelligent building”, since it is equipped with nature friendly, pollution preventing and waste recycling high technology systems. It is the first building in Korea that has three high tech functions: office automation, building automation, and telecommunication automation. Energy saving curtain walls, a natural light reflected atrium, recycling of wastewater, after-work hour electricity conservation and recycling, etc were planned, and the diversification of functions of spaces were considered to meet the need for a changeability of usages of spaces in the future form of the company as long as the original building structure is retained.

This is the KOLON office building, built in 1997. This building was designed with the same architectural planning concept used for the POSCO building. You can refer to the previous description of the POSCO building design. Glass curtain walls were dual glass walls with a double skin structure which improves the economical efficiency of the building maintenance.

The restrooms, located in the core of the building, were built in the space of a capsule in each unit, as the replacement of aged units was designed into the plans. But since the plan was not yet supported by the construction techniques, it was never replaceable but only appeared to be so.

Finally, I will escort you to my Gansam office building. 7 floors with 1 floor underground provide working areas, and there is a rooftop garden for staff to relieve the stress from architectural designing work. Especially during the Spring or Fall, this becomes a dining area and a place for communication and group discussions. During the Summer, the rooftop garden cools down the summer heat.

Some examples of research efforts from the ongoing architectural projects include ‘global warming prevention effort in architecture ‘low carbon yards’, ‘green spaces’, ‘rainwater purifying system’, ‘ventilation’, ‘energy self-development’, ‘passive concept of recycled materials in construction techniques’, and ‘green natural environment of exterior city’.

I hope this event will provide a great opportunity for all of you to make memorable experiences during your stay here in Korea. I welcome your comments and interest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architecture. Thank you.

하나가 모든 건물이 남향을 전면으로 계획하는 것이지요.

한국이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건축가의 친환경에 관한 저의 설계 경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976년 한국은행 본점 현상설계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시에 여성건축가가 당선자가 된 것이 화제였으니까요!

국립중앙 은행인 한국은행도 한국전쟁의 재건사업이므로 당시에는 친환경보호와 재생을 위한 설계 대상은 아니었지만 국립 중앙은행으로서 보안 안전관리의 기능과 설비가 정밀하고 첨단화의 설계였으며, 특히 화폐 폐기물처리에서 공해 방지설비 해결과 화폐정산 처리기능이 인력의존에서, 설계기간 동안에도, 기계자동화로 변화하는 설계변경의 경험을 가졌습니다. 시대변화가 설계 과정보다 급변하는 경험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건축가의 사고능력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였습니다.

1995년에 완공을 본 포스코 빌딩이라고 부릅니다. 포항제철회사 빌딩입니다.

철강생산은 조강생산량 연간 1,560만 톤의 세계 굴지의 기업입니다.

세계와 무역 거래하는 사업이므로 24시간 외국과 업무가 지속되어야 하는 사무자동화 기능의 컴퓨터가 사무공간의 주인공입니다.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친환경, 공해방지, 폐기물 재활용 등의 첨단설비 기능의 건축으로서 일명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무 자동화(Office Automation)” “건물관리 자동화(Building Automation)” “전송통신 자동화(Tele Communication)”의 3대 첨단기능의 건축을 한국 최초로 설계한 것입니다.

에너지 절약의 커튼월, 자연채광의 아트룸(Atrium), 오수정화의 재활용, 전기절약의 심야전기 활용설비, 등을 설계하였고 앞으로 기업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공간 기능의 가변성도 고려하며, 기본구조를 유지하며, 공간기능의 다변화를 설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재활용의 미래를 고려하였습니다.

1997년 코오롱 오피스 빌딩입니다.

앞에서 보신 포스코 빌딩과 동일한 설계계획 개념으로 설계하였습니다.

포스코 빌딩과 같은 내용으로 보아주세요

유리 커튼월을 이중 유리벽 더블스킨(Double Skin) 구조로 하여 에너지 재활용하며 건물 유지관리의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코아부분의 화장실은 캡슐 단위의 공간구조로 하여 설비의 배관기구의 수명이 노후화 될 때 교체를 고려하여 공간 단위 별로 쉽게 교체를 고려한 입면 형태였으나, 건설기술의 첨단 선진화가 뒤 따르지 않아 형태로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간담건축 사무실로 모시겠습니다.

지하층 지상7층입니다. 건축설계 작업 업무의 과중한 심리적 부담을, 자연 환경에서 휴식으로 회복할 수 있는 작은 옥상정원입니다. 특히 봄, 가을 계절은 식사장소, 대화, 토론 장소 등의 기능과 효과를 보며, 여름의 휴서(더위)의 기온을 낮춰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설계 프로젝트는 친환경의 설계를 위해 지구온난화 방지 저 탄소를 위한 설비, 건축과 공간, 환경의 녹화, 우수정화, 자연환기, 에너지 자력개발, 공법에서 재료활용의 패시브 개념, 단열, 그리고 외부 단지 도시의 녹색구현 환경자연보호를 위해 연구 개발 설계를 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Keynote Speech



Marina Stankovic

Cofounder, Stankovic Architekten BDA

Marina Stankovic is a Canadian architect practicing in Berlin, Germany. She founded the firm of Stankovic Architekten BDA in 1986, and since then has been involved in a wide range of architectural and urban planning projects

[Career]

Founder of Stankovic Architekten BDA
Member of Board Berlin Architecture Prize APB,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HTWK, Leipzig, Germany
Co-director at the Aedes Network Campus in Berlin
Loeb Fellow, Graduate School of Design, Harvard University

[Awards]

Master Plan International competition Symposium
"The Eternal Golden Castle Parks" in Tainan, Taiwan
Berlin Architecture Award 2007, Berlin

[Project]

Official Residence for the Canadian Ambassador, in Berlin
Urban conception for the Project Row Houses in Houston, TX, USA
Nam June Paik Museum, South Korea
Refurbishment historical apartment building block in Kreuzberg-Berlin

Shades of Green

Prof. Marina Stankovic will speak about sustainability and green building practices as to how they relate to differing urban environment and influence communities. Green awareness and practices are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as needs and problems arise from local conditions. Global and local knowledge is needed at the same time.

The lecture aims to expose some of these green building practices by means of various projects, in particular European, but also some Asian projects designed by our office. It is not enough to implement sustainable principles, applications of new construction technologies, use of new construction products, rather a rethinking in basic categories in order to reach wholistic solutions is necessitated. The reconsideration of which may actually lead to new concepts and forms of inhabitation. Green building forms the new ethos for the profession of the future.



마리나 스타코빅

스타코빅 건축사무소 BDA 대표

마리나 스타코빅 현재 베를린에서 활동중인 캐나다인 여성 건축가이다. 그녀는 1986년 Stankovic Architekten BDA 설립이래로 현재 다양한 도시계획프로젝트 와 건축분야에 활동하고 있다.

[경력]

- 1978-1983 캐나다 토론토 대학 건축과 졸업
- 2001-2002 미국, 하버드 건축대학원 특별연구원
- 2005년부터 독일, 라이프치히 응용과학대학 교수
- 2006 스타코빅 아키텍텐 비디에이, 토비아스 요르트지크와 파트너십 체결
- 2008 중국상하이, 라인 스튜디오 아키텍처 무한책임회사 설립

[심사경력]

- 2006 대만 "The Eternal Golden Castle Parks" 세계 기본 설계 심포지엄 대회
- 2007 베를린 건축 대회
- 2009 베를린 AEDES 네트워크 캠퍼스

[대표작품]

- 베를린 캐나다 대사관 숙소
- 텍사스 연립주택 도시 구상 계획 프로젝트
- 백남준 아트센터
- 쿠른츠 버그 아파트 도로 재건축

녹색 그늘

마리나 스타 코빅(Marina Stankovi) 교수는 친환경 건축물이 각각 다른 환경에 어떤 방식으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지, 그리고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와 관련해서 친환경 건축물 실천 사례와 환경 유지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할 예정이다.

친환경에 대한 인식과 실천 관행은 나라마다 다르다. 각 나라별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문제와 요구 조건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전 지구적이면서도 해당 지역에도 부합하는 지식을 동시에 필요로 하게 된다.

이번 강의의 목적은 유럽지역과 우리가 설계한 다른 아시아 지역의 프로젝트를 포함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예로 들어 친환경 건축과 관련된 실천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다.

포괄적인 해결책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환경 유지와 관련된 원칙과 새로운 건축 기술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건축 소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보다는 기본적인 범주에 속하는 사항들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즉, 주거지의 새로운 형태와 개념을 재고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친환경 건축물은 미래의 건축업계 종사자들이 갖추게 될 새로운 사고방식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Keynote Speech



Mara Servetto

Cofounder, Migliore + Servetto Architetti Associati,

Mara Servetto who graduated from Architecture Faculty of Turin Polytechnic is an Italian architect who designs architectural projects and exhibition design which define

Space through the use of light and construction of dynamic settings.

[Career]

Cofounder, Milgore + Servetto Architetti Associati

Teacher at the Politecnico di Milano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at Joshibi University in Tokyo

Keynote speaker, 2008 Seoul Design Olympic

[Awards]

2003 ASAL Prize for the best design exhibition of the year 2002

2006 "Gold Award" in USA for the 20th "Annual Exhibit Design Awards"

2008 XXI ADI Compasso D'Oro Award

[Project]

2006 Torino Winter Olympic games <Look of the City>

2007 Torino Winter Universiade

2007 Max Mara Exhibition<Coats!>

Pavia Festival del Sapari book-crossing project

From "iconic architectures" to "architectures for iconic behaviors"

Since 2007 we are focusing on the concept of "Space Morphing": the transformation and redefinition of empty spaces into dynamic settings. The opportunity to transform locations that may be defined as «dormant», (such as museum spaces, empty buildings or urban spaces) into new, active sites for communication, for offering cultural and emotional inputs. We may define this progressive design action as space morphing, since it is a fluid process of addition and layering of different elements in a certain place, aimed at supplying the space with new meanings and communicative valences.

Nowadays in the actual metropolitan context, the creation of episodes able to introduce new behaviors and thoughts, to generate information or aggregation, have a new important role in defining the city's aesthetic and cultural quality and to improve citizen's eco-behaviors. Elements that induce a qualitative effect over the entire urban territory throughout a well-aware use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city environment.



마라 세르베토

미글리오레 세르베토(M+S)건축사무소 공동대표

토리노 공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마라 세르베토는 빛의 사용과 역동적인 구성을 통해 공간을 정의하는 건축프로젝트와 전시 디자인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디자이너이다.

[경력]

現) 미글리오레 세르베토(M+S)건축사무소 공동 대표
 밀라노 공예학교 디자인분과 선생님
 도쿄 Joshibi University 겸임교수
 2008년 서울디자인올림픽 연설자

[수상내역]

2003년 ASAL 상
 2006년 연례 전시 디자인 어워즈 금상
 2008년 황금컴파소 상 수상

[주요작품]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Look of the City>
 2007년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2007년 막스마라의 전시 <코츠>
 파비아 페스티벌 북크로싱 프로젝트
 도쿄 <스페이스 몰핑> 전시

'상징이 되는 건축'에서 '상징이 되는 행동을 위한 건축'으로.

우리는 2007년 이후, '스페이스 모핑(Space Morphing)'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춰오고 있다. 이는 빈 공간을 역동적인 공간으로 재정립하고 탈바꿈하는 것을 의미한다. '휴면 상태의 장소 (박물관의 빈 공간, 빈 건물, 도시 공간)'를 소통과 문화와 감정을 얻을 수 있는 새롭고 역동적인 장소로 바꾸는 기획. 우리는 이와 같이 진취적인 디자인 활동을 '스페이스 모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정 공간에 새로운 의미와 소통을 제공할 목적으로 다양한 구성 요소를 더하고, 겹겹이 쌓아가는 역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도시 환경에서, 새로운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을 이끌어내고, 정보 또는 집적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에피소드를 창조해나가는 행위는 해당 도시의 미적, 문화적 품질을 규정짓고 시민들의 친환경 행동을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 새로 우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시 환경의 천연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이해함으로써 도시 전체에 양질의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들.

Keynote Speech

At the WDC Seoul Design Fair 2010 we are now presenting the new project for the Frederick Chopin Museum just opened on last March in Warsaw (Poland), the result of an international competition we won in 2008. The Chopin Muzeum is designed as "open museum", a structure able to bring classical music and the personality of Chopin to as wide an audience as possible, changing the traditional perception of the museum in an entirely individual knowledge experience made of different theme paths the visitors may choose to follow. Although it dialogues with the architectural and structural elements of the Palace, the project goes along with the creative development of the contents through the definition of 11 different landscapes: emotional landscapes and soundscapes capable of capturing the attention and curiosity of the visitors by stimulating all their senses. Each different thematic is developed through exhibition structures designed in order to integrated music, items of the collection and interactive systems defining a multilayer and multi-modal message, addressed to different audience/public, and it allows the visitor a unique free use.

Reflecting on the use of temporary exhibition and architecture as an active instrument, a means of generating behaviors and thoughts, the possibility of extending this field of use is very ample, and definitely steers the discussion towards urban spaces, to reasoning on the social dynamics of aggregation and entertainment, to reconsidering the use of spaces in general, and new uses of abandoned ones.

We are referring to city outskirts, certainly, and to urban voids, which need elements of aggregation and revitalization, but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other transversal places in the heart of the city, within districts, capable of creating a new, subtle connective tissue between the parts. Spaces of transition between different activities, between different movements of the day, paths, connections, become spaces with great potential for the planner.

It could be stated that the focus of the project has to move from "iconic architectures" to the definition of "architectures for iconic behaviors", places for knowledge and sharing that are highly characteristic and unique, because they are deeply rooted in the place and closely bound to the specific content. A common heritage of the city, capable of structuring and upgrading the places.

우리는 '2010 WDC 서울 디자인 페어(WDC Seoul Design Fair 2010)'를 통해 지난 3월 폴란드 바르샤바(Warsaw)에 문을 연 프레데릭 쇼팽 박물관(Frederick Chopin Museum)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다. 참고로 이 프로젝트로 2008년 국제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다. 쇼팽 박물관은 '개방형 박물관(open museum)'으로 설계됐다. 청중 또는 관람객의 범위를 가능한 넓히기 위해 클래식 음악 공연장으로서, 그리고 박물관으로서의 쇼팽의 개성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이는 관람객들이 각기 개별적인 선택에 따라 여러 형태의 테마를 지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박물관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을 바꾼 것이다. 이는 궁전의 건축적 구조적 요소를 따온 것이다. 하지만 11가지의 각기 다른 조경 방식을 g는 방식으로 그 내용면에서는 독창적인 개발이 이루어진 프로젝트이다. 이와 같은 11가지 조경에는 관람객들의 오감을 자극함으로써 호기심과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감정적 조경, 음악적 조경(사운드스케이프: Soundscape)이 포함되어 있다. 음악과 수집품, 다층적이며 다모드의 메시지로 규정 지을 수 있는 인터렉티브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 설계된 전시구조를 통해 다양 테마를 개발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청중과 관람객, 대중의 각기 다른 욕구를 해소했다. 또 관람객들이 이를 자유롭게, 그리고 독창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적인 전시 공간 및 건축을 행동방식과 사고를 창출하는 수단인 역동적인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이와 같이 활용 분야를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다. 또 이는 통합과 여흥, 공간의 활용에 대한 재고, 폐기 공간의 새로운 활용등과 같은 도시 공간에 대한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우리는 도시의 외곽지역, 공동화된 도시 공간에 대해 말하고 있다. 통합과 재생이라는 요소가 필요한 그런 공간이다. 또 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장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들 장소 사이에 새롭고도 절묘하게 결합조직과 같은 요소를 창출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상이한 활동, 상이한 일상, 경로, 접점이 교차하는 공간은 도시 기획자에게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안겨주는 그런 장소가 된다.

따라서 '상징이 되는 건축'에서 '상징적인 행동을 위한 건축'으로 프로젝트의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상징적인 행동을 위한 건축'의 대상이 되는 장소는 특정 주제와 밀접히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장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징적이면서 독창적인 공유와 지식을 위한 장소이다. 그 장소를 개선하고 구축할 수 있는, 도시가 갖고 있는 공통의 유산이다.